

2026_07 [2026. 7. 31.]

GJF 이슈포커스
Gyeonggido Job Foundation

GJF 이슈포커스 AI가 바꾸는 경제와 일자리 지형

백준봉 연구위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

2026_07

AI가 바꾸는 경제와
일자리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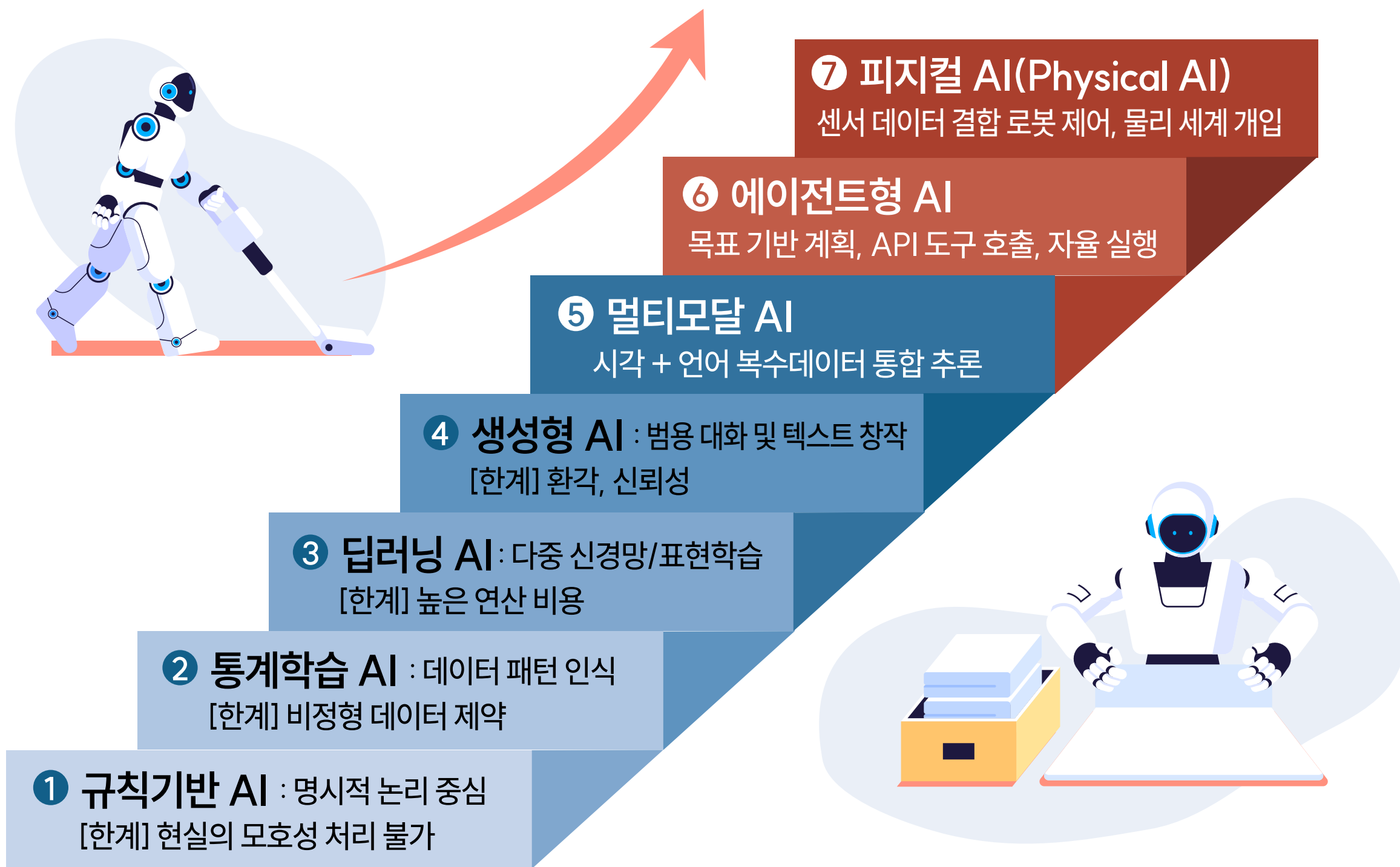
최근 인공지능(AI)은 생성형 AI를 넘어 멀티모달·에이전트·피지컬 AI로 확장

인지에서 행동으로 AI 진화

디지털 환경(텍스트, 이미지, 영상)을 넘어
물리적 세계로 확장

인공지능 경쟁의 확장

단일 모델의 성능 경쟁을 넘어 데이터, 반도체,
에너지 등 '산업 인프라 경쟁'으로 전환



세계 인공지능 시장 전망 및 권역별 지형

2026_07
AI가 바꾸는 경제와
일자리 지형

- 세계 AI 시장은 2030년 전후 2~3조 달러 규모로 **폭발적 성장**(연평균 30~40% 고성장 전망)
- 북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권역별 역할 분화**

세계 AI 시장 전망

수치 절대값은 조사 기관의
기준에 따라 다르나
**2030년 전후 현재 대비
수 배 이상 확대**

조사기관	현재/최근 규모	미래 전망	연평균성장률(CAGR)
BCC Research	2023년 1,488억 달러	2029년 1.1조 달러	39.7%
MarketsandMarkets	2025년 3,717.1억 달러	2032년 2.407조 달러	30.6%
Grand View Research	2025년 3,909.1억 달러	2033년 3.497조 달러	30.6%
Mordor Intelligence	2025년 3,060.4억 달러	2031년 2.503조 달러	41.95%

세계 권역별 AI 지형

북미 North Ame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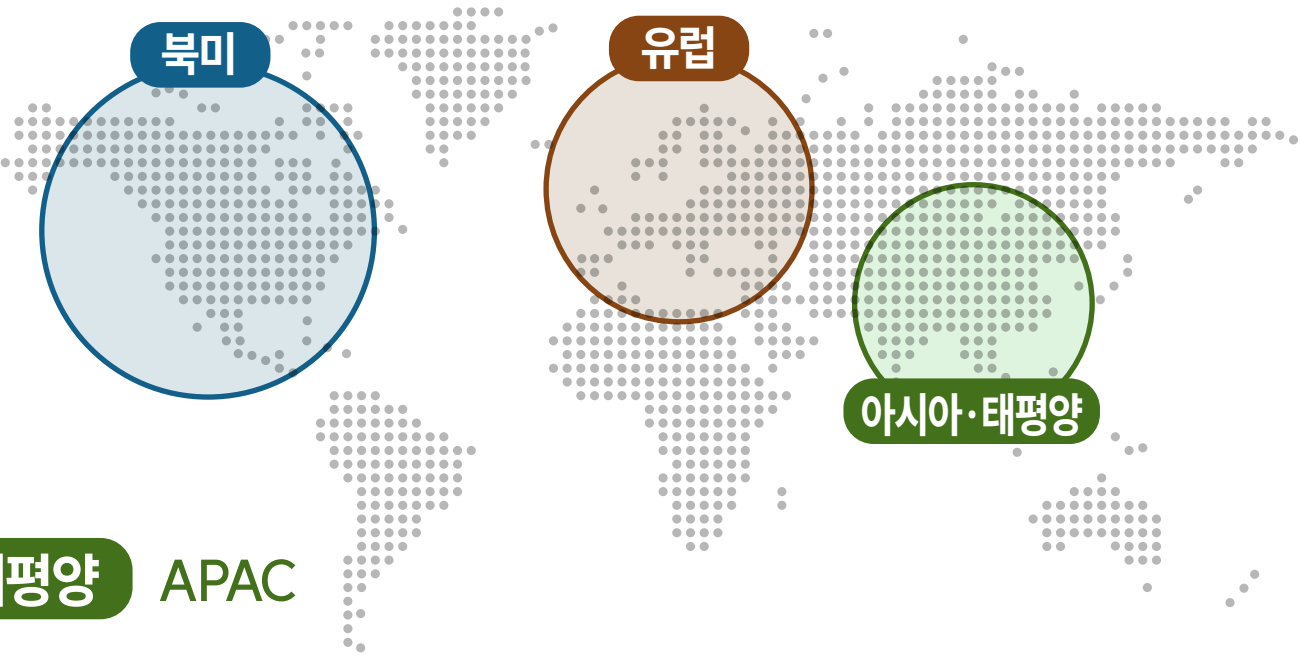
최대 시장(글로벌 점유율 35~43%).
빅테크,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모델,
고부가가치 기업 수요가 모두 집중된
'초격차 융합 시장'.

유럽 Europe

제 2위권. 규제(AI Act), 산업 응용,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이
결합된 '제도 기반 성장 시장'.

아시아·태평양 APAC

최속 성장 시장(Fastest-growing).
제조업의 지능화와 서비스 AI가 동시에
폭발하는 확산의 최전선.



인공지능의 거시경제 영향

2026_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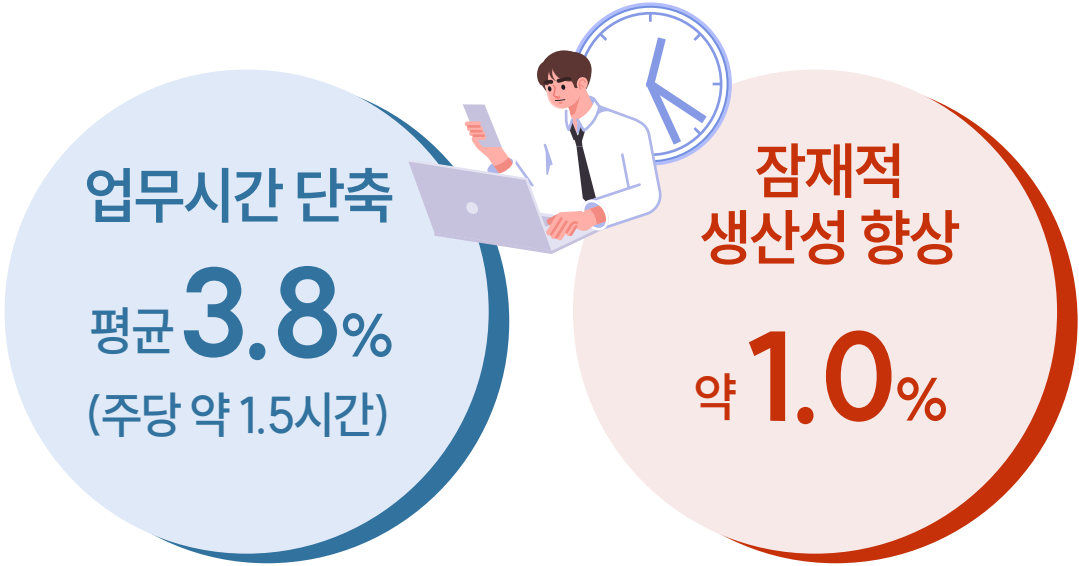
AI가 바꾸는 경제와
일자리 지형

- AI 활용은 업무시간을 평균 3.8%(주당 약 1.5시간) 단축해 약 1.0%의 잠재적 생산성 향상
- AI 도입은 한국경제의 GDP를 4.2~12.6% 높일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보유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AI활용에 따른 시간 절감은 실제
생산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거시적
생산성 지표에서는 관찰되지 않음

자료: 한국은행. AI 도입은 생산성을 높이는가? 초기 3년의 효과 분석, 2026.6



잠재GDP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은 시나리오1(노동대체+노동보완) 8.4%, 시나리오2(노동대체+생산성 향상) 4.2%,
시나리오3(노동대체+노동보완+생산성 향상) 12.6%로 AI의 GDP 영향을 추정

[AI가 잠재GD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관련연구	잠재GDP 영향	기간	포괄지역
Acemoglu(2024)	0.9~1.6%	10년간	미국
Penn Wharton Budget Model(2025)	1.5%	10년간	미국
Oxford Economics(2024)	1.8~4%	8년간	미국
McKinsey(2023)	2.4~4.1%	장기	전세계
Alonso et al.(2022)	4.7~19.5%	장기	미국
Goldman Sachs(2023)	7%	10년간	전세계
PricewaterhouseCoopers(2025)	1~15%	10년간	전세계
Aldasoro et al(2024)	20~45%	10년간	미국
한국은행(2025)	4.2~12.6%	초기균제상태~최종균제상태	한국

인공지능의 산업별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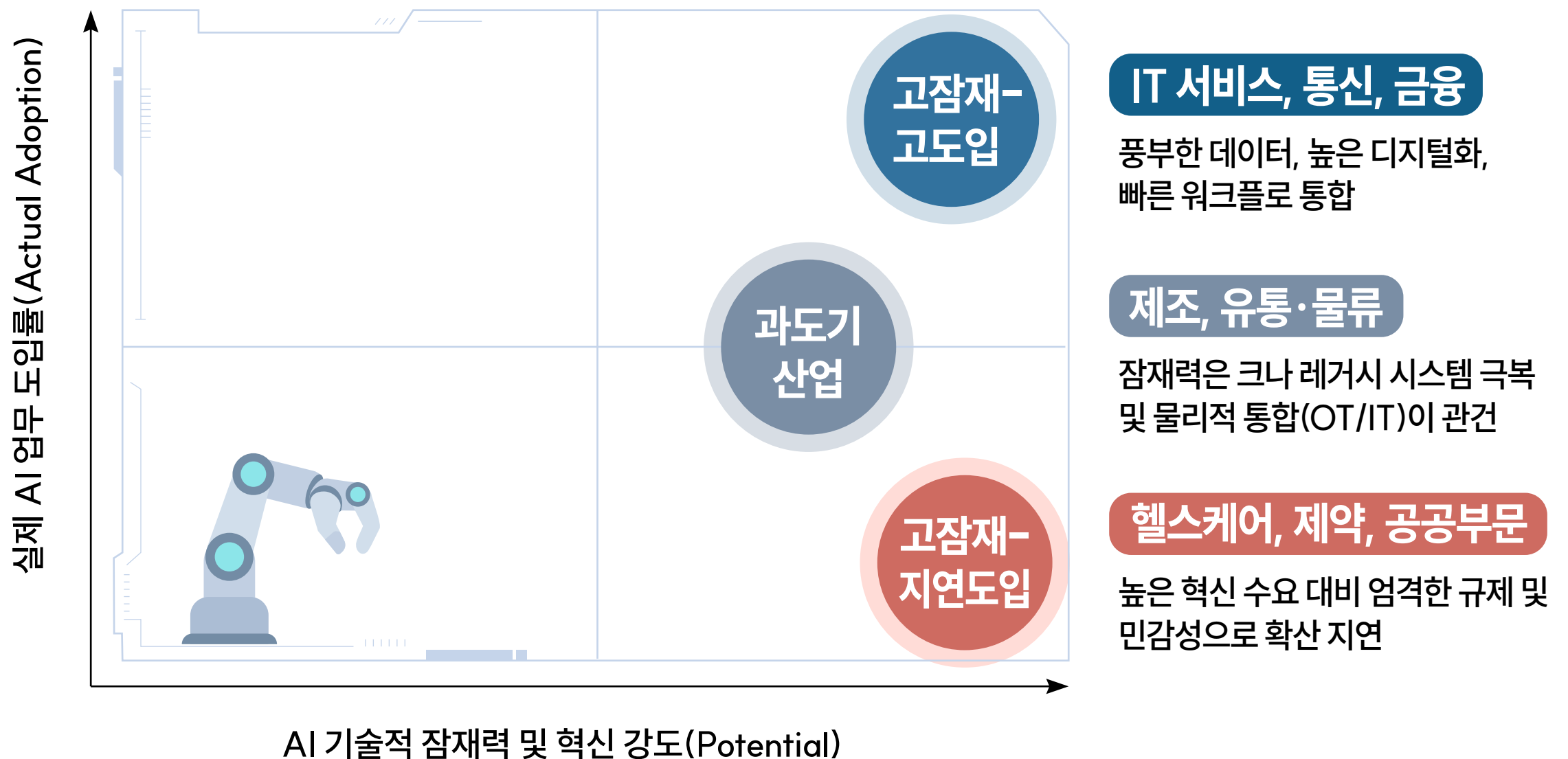
2026_07

AI가 바꾸는 경제와
일자리 지형

- 산업별로 AI의 확산 속도와 효과는 불균등
 - 데이터 구조, 디지털화 수준, 규제 환경, 가치사슬 구조, 인프라가 도입 속도와 작동방식을 결정
- 빠르게 확산된 영역은 **정보집약적**이고 데이터가 **디지털화**되어 있으며, **성과측정이 가능**한 부문

산업별 AI 도입

AI의 도입과 확산 기준으로 ICT·소프트웨어, 금융은 도입과 활용이 높은 **선도 섹터**이고, 제조업, 유통·물류는 **확산 섹터**이며, 헬스케어·제약, 공공부문은 규제 등으로 보수적인 **잠재 섹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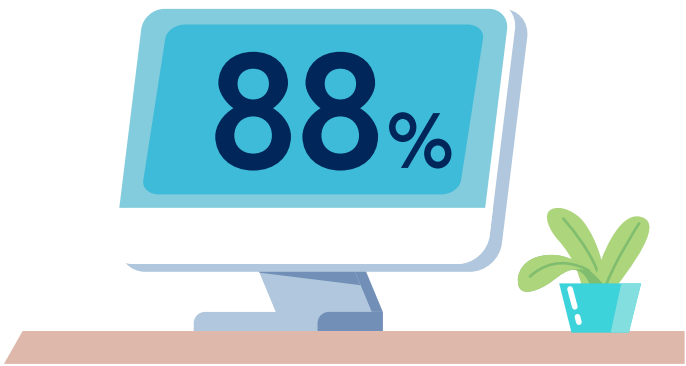
인공지능의 기업 영향

2026_07

AI가 바꾸는 경제와
일자리 지형

기업의 AI 도입률

2025년 전세계(조사 대상) 기업의 88%가
최소 1개 이상의 비즈니스 기능에 AI를 도입



매출 증가 및 비용 절감

AI가 도입 단계를 넘어 기업의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매출 증가**와 **비용 절감** 효과를 창출

AI를 도입한 기업 중 해당 업무 영역에서 효과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



매출 증가 효과 Highest Revenue Impact

(단위 : %)

마케팅 및 영업	67
전략 및 기업 재무	65
제품 및 서비스 개발	62



비용 절감 효과 Highest Cost Impact

(단위 :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56
제조	56
IT(정보기술)	54

인공지능의 고용 영향 : 무엇을 봐야 하는가?

2026_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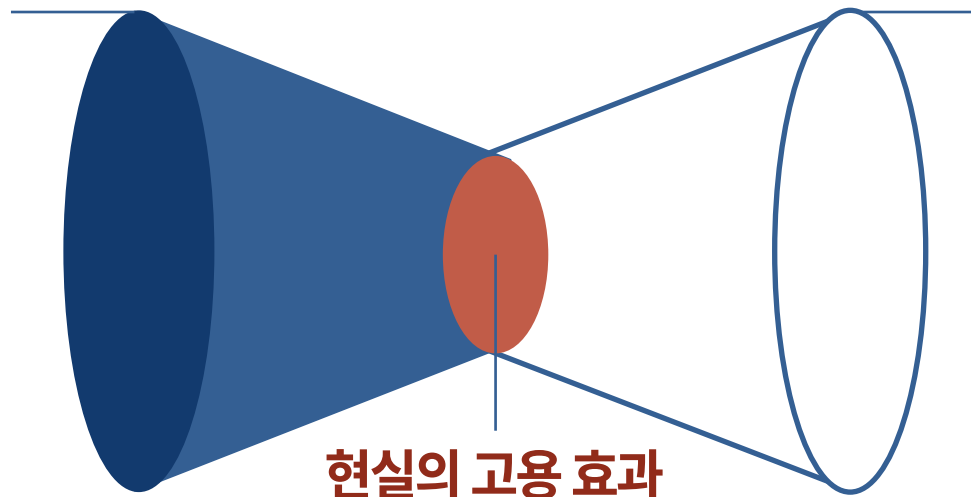
AI가 바꾸는 경제와
일자리 지형

잠재 노출과 실제 활용 구분

잠재 노출이 높아도 실제 활용은 낮을 수 있음

잠재 노출(Exposure)

생성형 AI가 특정 과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 지표'



실제 활용(Actual use)

노동자와 기업이 AI를
실제로 도입한 '행동 기반 지표'

고용효과의 3가지 경로

AI 사용이 기존 과업을 자동화(대체), 보완(증강), 또는 재구성(전환)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 필요

대체(Job Replacement)

반복적·정형적 과업 중심 축소
행정보조, 비서, 데이터입력
직무의 초급 업무 약화

창출(Job Creation)

AI인프라 운영 및 거버넌스
서비스 신규 수요
(WEF전망 : 순증 7,800만 개 구조변화)

재편(Job Restructuring)

과업 조합의 이동
검색/요약은 AI가, 인간은 예외처리,
판단, 신뢰 형성, 협업 조정에 집중

인공지능의 고용 영향 : 일자리 소멸보다 직무재편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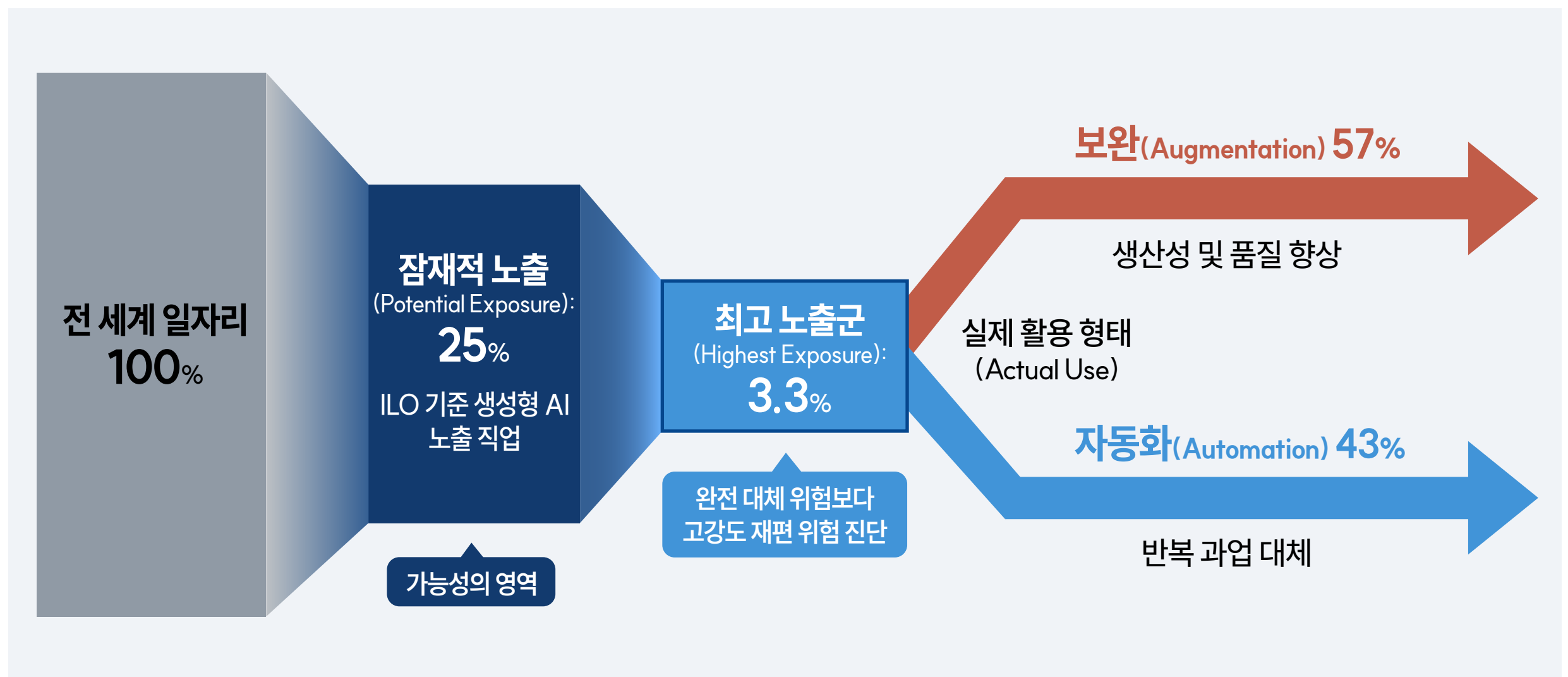
2026_07

AI가 바꾸는 경제와
일자리 지형

- 전 세계 고용의 25%가 생성형 AI에 노출되어 있지만 **완전 대체될 '고위험 노출 직종'은 3.3%**
- 현재 AI 활용이 소프트웨어·문서작성 업무에 집중되어, 직무 대체(자동화)보다 보완 성격(57%)

직무 재편 중심의 고용 영향

고용 영향은 총고용의 감소(일자리 소멸)보다 **직무전환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5년 Anthropic Economic Index는 수백만 건의 클로드(Claude) 사용로그를 분석하여, 현재의 AI 사용 패턴은 완전 대체(자동화)보다 **부분적 과업 보완 성격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줌

인공지능의 고용 영향 : 비대칭적 효과 1

2026_07
AI가 바꾸는 경제와
일자리 지형

- **성별·연령·숙련 수준·기업규모**에 따라 AI의 고용영향은 **불균등하고 비대칭적**
- AI가 생산성을 높이지만 조건에 따라 고용과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기술로 작용

AI의 비대칭적 고용영향

- 고위험 직무에 여성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4.7%로, 남성 2.4%보다 2배 정도 높음(ILO, 2025)
- 고숙련자에게 생산성 보완 및 임금상승 혜택 집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확대

구분	주요내용	비고
성별	최고 노출 범주 성별 차이(전 세계) : 여성 4.7%, 남성 2.4% 최고 노출 범주 성별 차이(고소득국) : 여성 9.6%, 남성 3.5% OECD국 AI 사용 성별 차이 : 남성 41%, 여성 29%	사무·행정 등 여성집중 직무의 전환부담 큼 고소득 지식경제일수록 성별 격차 확대 가능 AI 도구 접근성과 활용도 차이 존재
숙련	고숙련은 보완 가능성, 저숙련은 임금·고용 취약 생성형 AI 고노출 직무·고숙련 중심 임금성장, 전통적 AI는 저숙련 임금성장 약화	고숙련-저숙련 격차 확대 위험 이중 트랙 훈련 필요
연령	청년층의 높은 취약성 미국 22~25세 소프트웨어 개발자 고용은 2024년 대비 20% 감소 한국 AI 고노출 직종군 구인공고는 2022년 대비 2025년 56.3% 감소	AI가 전체 직업군보다 먼저 '입직 경로'와 '초기 훈련의 현장학습 기회'를 줄일 수 있음 청년 전환지원 강화
기업 규모	한국 국내기업 조사 : 대기업 선도, 중소기업 후행 대형·중형·소형기업의 AI활용률을 각각 40%, 20%, 12%	AI 도입이 기업규모에 따라 급격히 달라짐 SME 맞춤 지원 필요

자료: ILO. Generative AI and Jobs: A Refined Global Index of Occupational Exposure, 2025 ; IMF. Gen-AI: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uture of Work , 2024 ; Stanford Institute for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HAI), The AI Index, 2026 ; OECD·KLI.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Labour Market in Korea, 2025

인공지능의 고용 영향 : 비대칭적 효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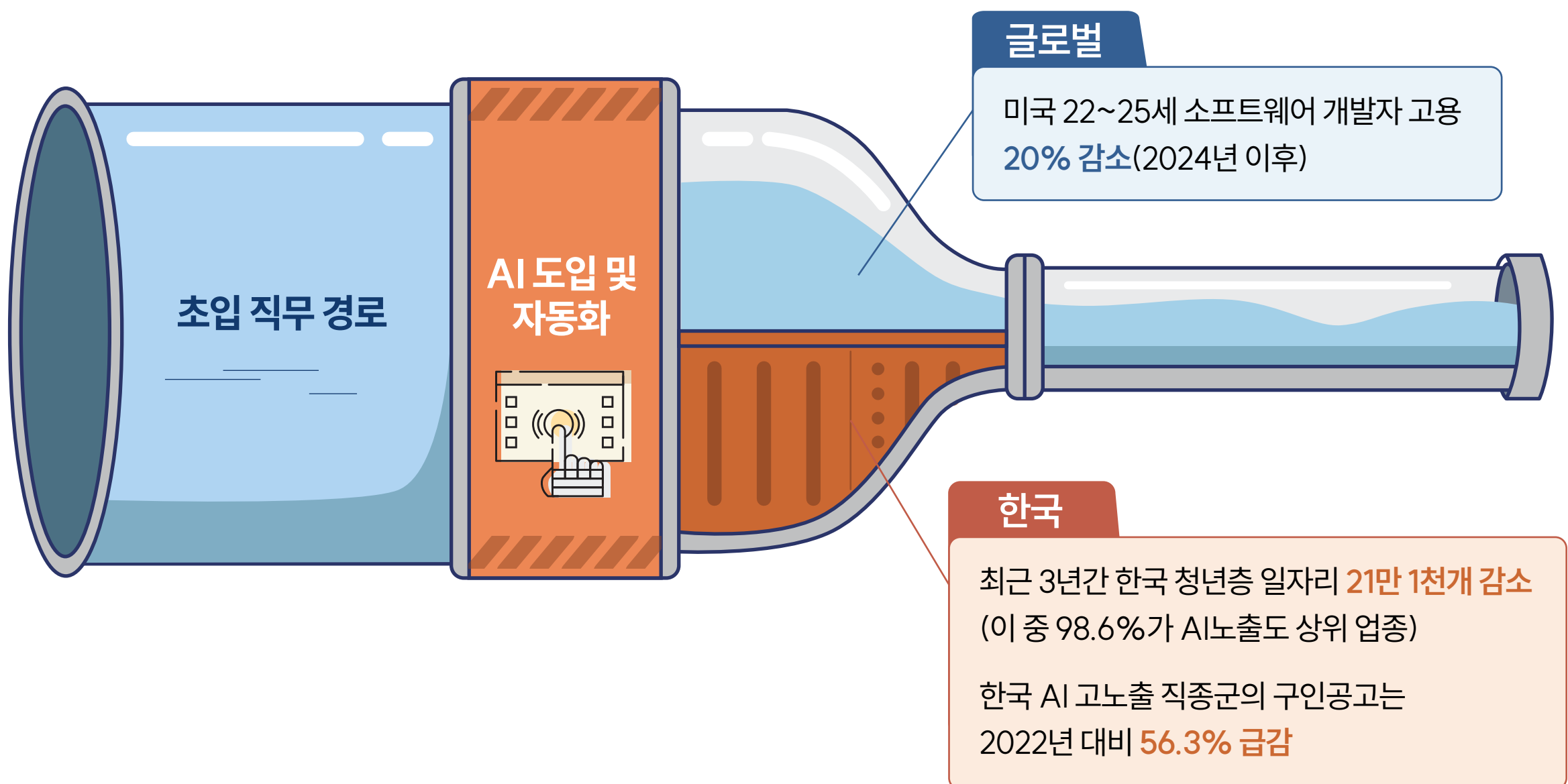
2026_07

AI가 바꾸는 경제와
일자리 지형

- 생성형 AI 확산이 총고용을 감소시켰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석 결과는 아직 없음
- 하지만 **청년층에서 신규 채용 감소와 초임 직무 축소** 등 차별적 영향이 나타남

청년층 일자리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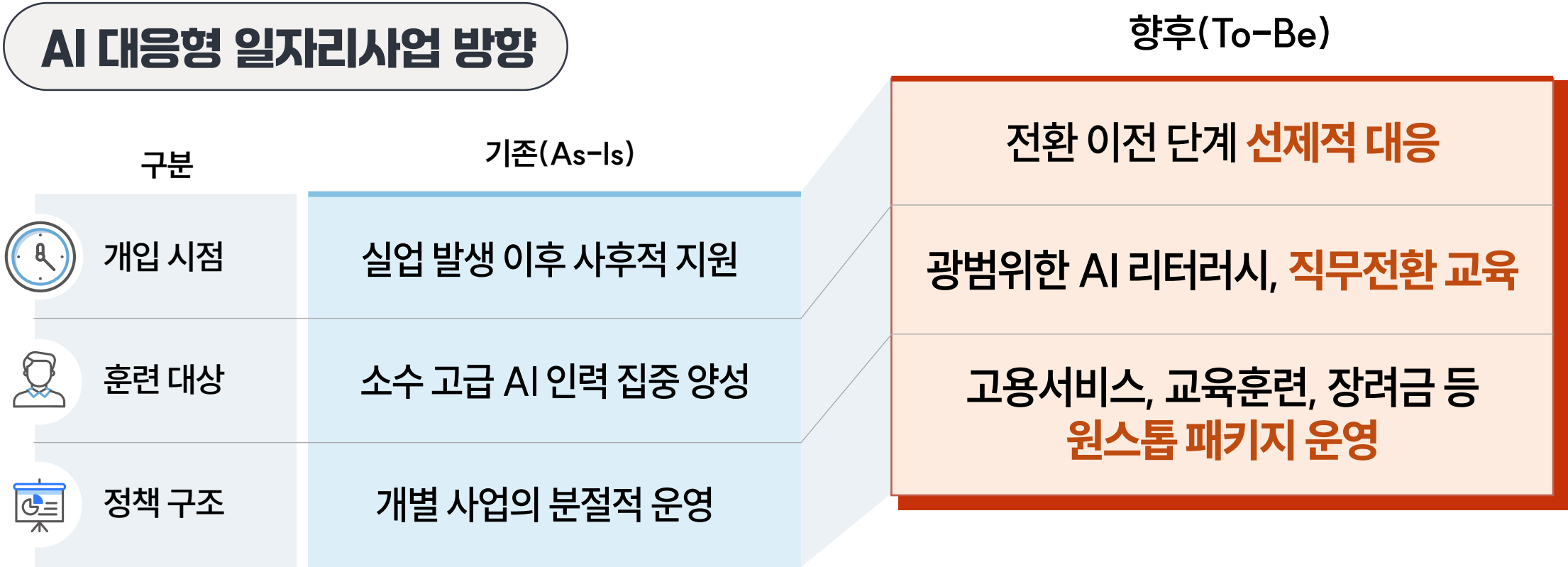
- 2022년 7월~2025년 7월 한국 청년층 일자리는 21만1천개 감소했고,
이 중 20만8천개(98.6%)가 AI 노출도 상위 업종에서 줄어듦(한국은행, 2025.10)
- '직업 소멸' 보다 청년층 채용 감소와 진입단계(entry-level) 직무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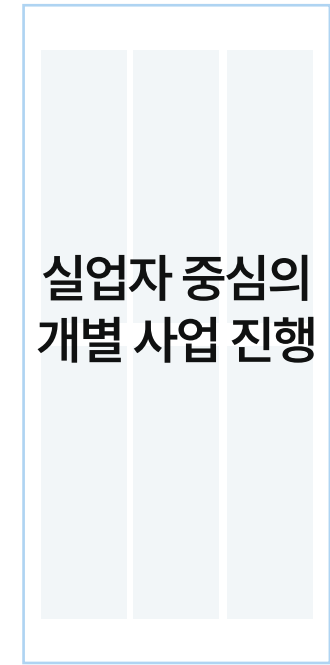
고용 영향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2026_07
AI가 바꾸는 경제와
일자리 지형

AI 시대 일자리정책은 **전환 지원체계 구축으로 재구조화**



[As-Is : 분절적 운영]



[To-Be : 연계 경로형 패키지 운영]

